



맨발의 꿈



그랑프리

월드컵 앞두고 '스포츠 영화' 몰려 온다

'맨발의 꿈' '글로벌' '그랑프리' '챔프'
축구·야구·경마 등 소재 제작 잇따라
실화·탄탄한 스토리 ... 인기몰이 예고

'각본 없는 드라마'로 불리는 스포츠는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한다. '국가대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등 스포츠 소재 영화는 흥행 대박을 터트리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경마·축구·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 장르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속속 제작되고 있다. 가슴 찡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도 있고, 탄탄한 스토리로 무장한 영화들도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2010 남아공월드컵을 앞두고 오는 6월 10일 관객들을 만나는 축구 소재 영화 '맨발의 꿈'이다.

동티모르에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던 김신환 감독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맨발의 꿈'은 동티모르의 '한국인 히딩크'라 불리는 김감독이 맨발의 소년들과 일궈낸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우승이라는 기적을 그리고 있다.

탈북자 이야기를 그린 '크로싱'의 김태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연기과 배우 박희순이 주인공 김신환 감독에 해당하는 인물인 김원광 역으로 출연한다. 또 김원광을 돕는 코치이면서 주 동티모르 외교관인 박인기 역은 '의형제', '영화는 영화다' 등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던 고창석이 맡았다.

영화에 등장하는 동티모르 어린이들은 김신환 감독이 가르치고 있는 축구팀 아이들을 대상으로 현지 오디션을 통해 뽑았으며 동티모르의 구스마오 총리도 실제 출연한다.

최근 스릴러물 '이끼'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준비중인 강우석 감독은



유선



차태현

차기작으로 야구를 소재로 한 '글로벌(G-LOVE)'를 준비중이다.

시골 고교야구부를 배경으로 퇴물 프로야구 선수와 여교사, 학생들의 열정과 우정, 사랑을 담게 되는 '글로벌(G-LOVE)'는 주인공 캐스팅을 이미 확정했다.

퇴물 프로야구 선수 역할에는 '이끼', '실미도', '강철중'을 통해 감각 독과 호흡을 맞췄던 정재영이 캐스팅됐으며 시골 여교사 역으로는 배우 유선이 출연한다. 야구부원 역할을 맡을 배우들은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경마를 소재로 한 두 편의 영화도 제작중이다. 현재 한창 촬영중인 '그랑프리'는 사고로 말과 자신감까지 잃은 기수와 그랑프리에서 우승했지만 친구를 잃은 기수인 남녀주인공이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달릴 수 있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영화다.

드라마 '아이리스', '바람의 파이터', '홀리데이'의 양윤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기수 역을 맡은 김태현은 일주일만에 4일을 승마 연습에 매달리며 촬영을 준비했다.

남자주인공으로 낙점돼 촬영을 진행했던 이준기가 갑작스레 군입대 하면서 현재 적합한 남자 배우를 다시 물색하고 있다.

임수정이 출연했던 영화 '각설탕'의 이환경 감독은 또 다른 경주마 이야기로 관객들을 만난다.

시력을 잃어가는 왕년의 스타 경마 기수와 퇴물 신세 절름발이 경주마의 우정과 도전을 그린 '챔프'는 통산 33번의 경주에서 13번의 우승을 차지한 절름발이 경주마 '투나'의 실화를 재구성한 작품이다.

'과속 스캔들' 이후 활동이 뜸했던 차태현이 주인공 역을 맡았으며 제주도와 부산, 일본 등에서 촬영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대한민국 1%



최정에 특수 부대인 해병대 특수수색대 요원으로 활동하게 된 여군의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다.

남자도 버티기 힘든 해병대 훈련 과정을 1등으로 통과한 이유미 부사관, 아버지의 대를 이어 해병대에 들어온 그녀는 차별 속에서도 여성 최초로 해병대 수색대에 자원해 만난 꼴찌인 3팀의 팀장이 된다.

해병대 수색대 활동 여군의 이야기 그려 故 조명남 감독 유작

하지만 팀원들은 좀처럼 그녀를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진급을 앞둔 왕종팔 하사는 호시탐탐 방해공작을 한다. 반면 엄격한 강철인 중사는 유미를 믿어주지만 왕하사의 계략으로 모두 위험에 처한다.

이유미 역은 신인여배우 이아이가 맡았으며 탄탄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손병호와 임원희가 강중사와 왕하사 역으로 출연한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해병대의 뜨거운 동료애 등 해병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으며 거친 남성들의 세계에 뛰어든 여부사관의 패기를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간 큰 가족'(2005)을 연출했던 고 조명남 감독의 유작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www.kkba.or.kr

국제보청기

본점 061)227-9940
 수원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충청점 053)227-9970
 부산점 061)851-2422

아이엘리시아 가족모집

www.aeliasia.com

1. 교육비
 2. 입학금
 3. 수업료
 4. 교재비
 5. 기타비용

www.aeliasia.com

SINCE 1988

대한민국 대표 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지붕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수거율 100% 방수성능!!

방수제 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장, 지붕, 옥외, 주차장, 수영장 방수용 요하는 곳

최신 공 도막 방수전문업체 책임방수제입니다.

특히 물 피해를 막는 건축이나 방수전문업 분야입니다.